



母性건강 증진을 위한 性교육

최 연 순
(연세간호대학교수)

장 순 복
(연세간호대학전임강사)

I. 서 론

개인이 사회적으로 성장해 나가는데의 기본은 가족이다. 이 가족을 단위로 하는 질 높은 건강관리를 돕기 위하여는 가족중심의 총체적간호를 시행할 수 있어야 하며, 가족중심의 건강관리란 가족의 구조와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남성과 여성에 상관되는 인간행위에 대한 적절한 지식과 원리, 태도등을 알아야 한다. 가족중심의 건강관리란 현대에 급격히 요구되는 모자건강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인이 되며 또한 모자건강은 올바른 성교육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간호학생을 위한 산부인과 간호학의 범위에는 모자건강을 뒷받침하는 성교육은 의도적인 교육이 필요없다는 전제하에 거의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 이 지면을 통하여 모자건강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건강과 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II. 본 론

이제까지 금기되었던 사항들이 의도적으로 교

육되어야 한다는 것은 용감한 발언이 될는지 모른다. 그러나 현대의 청소년들은 성해방의 물결로 인해 매스컴을 통하여 제한없이 흡수되는 기층없는 성지식을 받아들이고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지표가 없어 갈등을 갖게되며 나아가서는 모자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전통적으로 소년들은 아버지나 형, 친구들을 통해서 성교육을 받았고, 소녀들은 할머니, 어머니, 친구들을 통해서 받아왔다. 즉 간접적이고 소극적이며 부분적이고 비공식적인 교육만을 받아왔다. 그러나 학교교육과정에 건강과 성교육에 대한 교육기회를 포함시킴으로서 성은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소유하고 있는 일부분이란 것을 깨닫고 인정하도록 되어야 한다. 이제까지 교과과정에 성교육이 혼전지도나 모성건강의 영역에서 포함되지 못했던 요인들은, ①금기라고 생각하는 관념과 관습법, ②Catholic이나 불교같은 종교적 제한, ③혼음이나 난잡함에 대한 부모의 우려, ④학교당국자의 저항, ⑤선생의 혼란부족등으로서 성교육이 건강교육과 병행될 때 학생들이 선생의 사생활을 묻거나 권위가 손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등이었다. 어떤 난관이 있어도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모두 성교육이 강화되고 있으며 모성건강의 증진 및 유지를 위해 우리나라의 간호학생을 위한 과정에도 성교육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결혼전 성행위가 인정되는 나라다 하여도 임신만은 피하도록 하고 있다. 일단 임신이 된다면 법적인, 도덕적인 추방대상이 되고, 인공유산, 유아살해, 미혼모의 문제가 생기므로 결혼이 강요되기도 한다. 또한 대부분의 문화권은 결혼전 임신은 결혼해야 되는 것처럼 보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계획된 결혼보다 불안정한 것이며 사회, 경제적으로도 불리할 뿐더러 이혼율이 높아지게 하는 요인이 된다.

1974년 United Nations Fund for Population Activities에서 15개의 개발도상국과 5개의 선진국이 모여서 선언하기를 “모든 인간은 적당한 정보와 서비스를 각자의 가족생활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결혼했든 아니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족계획 서비스는 지역주민 모두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한 것은 무질서한 성생활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과 가족의 건강문제는 선택적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점차 성적인 조숙, 만혼의 경향, 도시집중화로 인하여 성적인 노출기회가 많아짐은 현실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미혼모는 애기를 소홀히 다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까지 생기므로 모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미혼모의 문제는 장래 개인생활의 사회, 경제적 발전을 저해한다. 결혼한 여성의 조기임신은 교육적, 직업적 기회를 잃게 만들고, 미혼여성의 조기임신은 결혼의 생활이나 뜻밖의 조혼을 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결혼했든 아니든 간에 첫 임신이나 출산을 반드시 계획하는 가운데 진행되어야만 사회, 경제적으로나 모성건강면에 있어서 수준이 유지될 수 있다. 임신이나 출산이 반드시 계획되어 가족생활과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교육 내용에

- ① 성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인식
- ② 생산생리에 대한 지식
- ③ 조기임신의 위험에 대한 정보
- ④ 피임기구 사용의 동기강화
- ⑤ 피임이나 유산의 손쉬운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⑥ 결혼전 지도를 하여 남편은 가정의 지도자이며, 중심을 이루고 합리적이며, 행동중심적이고, 생각을 표현하고, 일에 만족을 느끼며, 용기를 갖고, 열정적인 사랑을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고, 아내는 남편의 동료로서, 조력자로서, 섬세한 마음가짐과 직관력을 갖고, 인간 중심의 감정을 표현할 줄 알고 결혼자체에 만족을 느끼며 늘 사랑을 추구하는, 감상적인 태도를 지니는 특성이 있음을 인식시켜 결혼생활을 영적으로 건강하고 서로 사랑하며, 적응해가며, 의사소통이 가능한 심리적 유대를 갖고 건강한 성생활을 지키며, 사랑의 관계를 이뤄 경제적으로 안전한 기반을 갖고 자녀교육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교육적 배경아래 이뤄져야 함을 가르쳐야 한다. 위와 같은 사항을 교육함에 있어서 교육자는 피교육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요구를 이해하여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성에 대한 사실과 느낌에 대해 솔직하게 서로 의견을 나누도록 권장함이 필요하다. 포함될 성교육은 첫째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사실적인 것만 보여줄게 아니라 질문에 대해서 피하는 태도없이 대답하도록 해야한다. 친밀한 분위기에서 하되 정식의 관계를 맺으며 여성, 남성의 생식기의 해부학적 설명, 사춘기의 성숙과정, 몽정, 월경, 성병, 임신, 피임방법, 효과, 편리성 비용, 성적표현, 수음, 성교등을 포함하고 성병의 후유증, 동성애의 사회적인 문제, 자궁내의 발육과정, 진통, 출산동에 관해서 교육한다. 교육후에는 반드시 지식적인 면에서 평가하고 계획자체에 대한 평가도하여 성에 대해서는 각자의 선택하에서만 가능하며 성행위에 대한 책임과 그에 따른 건강문제를 생각하게 돕는다. 궁극적으로 간호학생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환자의 Sexual history taking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 구체적인 태도에 있어서 ①환자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②Privacy를 유지시켜 주고, ③환자를 무지로부터 해방시키고, ④환자의 심리적 측면과 신체적 요구를 이해, ⑤상대방의 기대를 명확히 할 수 있고, ⑥어린 청소년들의 특성과 관심을 파악할 수 있게까지 되

며, ⑦상대방과 앞으로도 계속 성적인 문제에 관해 토의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⑧쉬운 평이한 말부터 시작하여 점차 사생활의 문제(성에 대한)를 다룰 수 있고, ⑨신뢰감을 주어 다른 어디에도 누설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줄 수 있도록 되어야겠다.

III. 결 론

모성건강을 위한 우리의 역할범위는 넓어지고 있다. 우리의 성생활과 생활태도는 건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모성의 건강유지를 위한 모든 계획은 의도적으로 선택되어야 하고, 의도적으로 선택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올바른

성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므로 이에 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 DeGrave, Gail, R.N. B.S.N. 외 2人, "Sex Education, Nursing", 1976, June, p.22.
- Dresen, Sheila, "Adjusting to single parenting", A.J.N. 1976, Aug., p. 1286.
- Novak, R. Edmund, "Novak's Textbook of Gynecology" Williams Wilkins, 1970. p. 655
- Roznoy, Swenson Melinda, "How to take a sexual history" A.J.N, 1976, Aug., p. 1279
- Wuerger, K. Mardelle, "Stepping into parenthood" A.J.N. 1976. Aug, p. 1283.

연구 논문 현상모집

◇ 현상모집 마감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기하면서
회원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

—응 모 요 령—

마감기일 : 1976년 12월 31일

제 목 : 실무를 통한 범위내에서 임의로

응모자격 : 병원간호원, 보건간호원, 양호교사, 교련교사(간호원
면허소지자)

매 수 : 30~50매(200자 원고지)

응모방법 :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현주소 ④ 약력 ⑤ 근무지
⑥ 직위등을 논문 제출시 명기할 것

상 금 : 상패 및 부상

발표 및 시상 : 대한간호, 1977년 1월 총회

제 출 처 : 본 회

※ 응모된 논문은 일체 반환치 않음